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조건부 승인...“교통대책 마련하라”

광주 북구,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 강제 이행조건 제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엔 광천사거리 등 교통량 2.2배 ↑

광주시 북구가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을 허가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더현대 광주가 들어선 이후에는 복합쇼핑몰에서 주차를 하고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관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하고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행 조건은 프로야구 경기시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복합쇼핑몰 공사 중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것, 준공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광주천 친수공간과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변 경관·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이다.

이들 조건은 준공 전 이행해야 하는 '강제 조건'으로, 미이행시 북구는 허가 취소,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북구는 복합쇼핑몰 공사와 더불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공사, 광천동 재개발사업, 신세계 복합문화 시설 개발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겹치면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광주시 북구임동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광주일보 5월 30일 7면>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인근 임동과 광천동 일대의 하루 교통량은 현재 13만대에서 최대 29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광천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서비스 수준은 A-F

'더현대 광주' 조건부 승인 이행 조건

- 프로야구 경기시 쇼핑몰 주차장 활용
- 복합쇼핑몰 공사 중 임시주차장 확보
- 준공 후 3개월 이상 사후 교통 모니터링
- 광주천 친수공간·자전거 도로 조성 연계 주변 경관·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급 중 최하 수준인 F등급 중에서도 가장 혼잡이 심한 FFF등급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FFF등급은 차량이 전방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3주기가 걸리는 심각한 정체 상황을 가리킨다.

인근 운암사거리 교차로 또한 오후점두시(오후 6~7시) 기준 북문대로(동·서측)의 서비스 수준이 현 F등급에서 FF등급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구는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2032년 준공될 예정이라 복합쇼핑몰이 개점될 2027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 현재 교통 시설로만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구는 지난달 26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2개 교통환경 개선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으나, 이 중 8개 안에 대해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반려당한 개선안은 광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주천변과 빛고을로 연결, 천변좌로-양동시장까지 도로확장, 신안교-신운교 하부도로 확장, 제니스아파트 앞 교량 신설, 챔피언스필드 보행 교량을 차량·보행교량으로 변경할 것 등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기조와 반대로 차량 교통량을 늘리는 안 등이 포함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가 설립될 예정인 광주시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부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입장이다. 또 운암사거리 교차로 입체화 등 2개 안은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구는 지난 17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가 불수용 결정된 8개 안을 포함한 교통 대책을 재건의 했다. 공문에는 대차로 대책만으로는 임동 및 광천 권역의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있는 물리적인 도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문인 북구청장은 "인근 공동주택 1만6000세대 건립까지 맞물리면서 교통이 혼잡하고 현재 광천권

역 일대는 야구 경기일 교통난, 광천권 대규모 재개발, 동운고가와 운암사거리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북구가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두 협의가 종료된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광주시는 충분히 협의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했다"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광주시에 낸 공공 기여금 중 600억원은 북구가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북구가 집행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될 문제이며 지하차도 개통 전 교통혼잡 문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는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27년 이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쌀값 1년 8개월 만에 20만원 넘어...농민들 "더 올라야"

80kg 20만1068원...재배면적 감축·이상기후에 작황 부진

쌀값이(80kg)이 20만원을 넘어섰다. 모처럼 오른 쌀값이지만 치솟는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농민들 반응이다. 쌀 재배면적 감축과 이상기후로 인한 비작황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쌀 수급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일본 사례를 감안하면 재배면적 감축 위주의 양곡관리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도 파악한 쌀 한 포대(80kg)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20만 1068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 가격이 2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9월(20만 253원)과 10월(21만 222원)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전국 쌀값은 지난해 11월(18만 3219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

4월(19만 3928원)부터 전년도 같은 기간(19만 1203원)보다 높게 형성됐다.

지난해 쌀 생산량(359만 t)이 전년 대비 12만 t 감소한데다, 정부가 공공비축미(40만 t), 시장격리(20만 t), 비밀구 등 피해 벼 매입(2 t) 등으로 62만 t을 매입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남도 등 농정당국 분석이다.

통상적 쌀값 추이라면 매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햅쌀 수확 전인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선다.

여기에 전년보다 감소한 광주-전남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면 쌀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의 경우 농협 RPC 등의 재고 물량은 8만 2000 t으로 전년(14만 4000 t)보다 43%(6만 7000 t)나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전남도 목표 가격(80kg 22만원)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차량 유류대·인건비·비료값 등을 포함한 쌀 생산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농민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100g) 300원, 1kg 3000원으로 계산해 80kg 기준 24만원 정도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 의원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다 쌀값 급등에 따라 역대 처음으로 쌀 수입까지 추진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철회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

시민단체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18일) 8주기를 맞아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 말고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노후 핵발전소는 오래 쓸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폐쇄가 필수"라며 "새 정부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주장하고 있지만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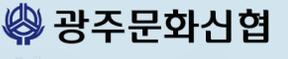
이어 "2023년부터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윤 정부가 핵추진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한빛1·2호기는 수명연장 없이 그 날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여부는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하며 한빛1·2호기가 예정대로 폐쇄된다면 송전망 과포화로 막혀 있는 광주-전남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빛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9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부터 수명연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